



11월

추천도서



11월 9일 소방의 날



(조선의 소방관) 명화군 홍종의 / 파란정원

열세 살 무굴이가 가슴속의 불을 다스려 진짜 불을 끄는 명화군이 되기까지 이야기. 이야기를 통해 지금도 불이 날까 조바심을 내며 언제라도 출동 준비를 하고 있는 모든 소방관들의 노고를 알고,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의 직업 소방관 꿈디자인LAB / 동천출판

청소년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보지 《나의 직업 시리즈》 소방서와 소방관이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한다. 알고 있는 업무 뿐만 아니라 필요한 자질과 직업적 특성 등도 함께 다루고 있어 직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다.



(담대하다면) 소방관 이성숙, 김용환 / 토코쇼

청소년들의 진로와 직업 탐색을 위한 잡프러포즈 시리즈 15권.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긴박했던 화재 현장이나 구조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도 들을 수 있다.



소방관 어떻게 되었을까 이민재 / 캠퍼스멘토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직업 이야기 시리즈. 5인의 소방관들의 커리어 패스를 통해 리얼 소방관 이야기를 담았다. 직업을 결정하거나 중요한 선택의 순간 어떠한 결정들을 하며 왜 지금의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주며 학생들에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진다.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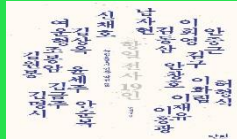
대한 독립 만세 정명섭 외 3인 / 서해문집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 청소년소설 작가 다섯 명이 의기투합하여 31운동 현장을 소설로 담은 책. 각 소설 끝에 작가들이 소설의 중심이 된 만세운동과 그 후 이야기를 팔각하게 덧붙여, 소설에 미처 담지 못한 역사 이야기와 만세운동 현장의 현재 모습을 잘 이어서 보여 준다.



나는 여성이고, 독립운동가입니다 심옥주 / 우리학교

역사의 그림자에 갇혀 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범위와 역할에 따라 7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40개 목차를 통해 소개한다. 여성이 '뒷바라지'만을 하면서 보조 역할에 머물지 않았음을 저자는 재차 강조하며 그들 모두가 독립운동의 중심이고 대한민국 광복을 이끈 주역이라는 메시지를 자연스레 이야기한다.



항일 전사 19인 만재성 / 단비

일본의 지배를 받던 당시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항일 운동가들의 생애와 운동사를 기록한 책. 제대로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기리는 작업은 다음 세대를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유산이 될 것이다.



(지워지고 잊혀진) 여성독립군열전 신영란 / 초록비책공방

목숨을 내놓고 국내에서 치열하게 항일 투쟁을 했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기억에서 잊히고 기록에서 사라진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들여다본 책. 작가는 공식 사료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애를 담은 각종 비 공식 자료, 신문기사, 다큐멘터리 등 각종 매체까지 찾아 진실에 가깝게 그들의 삶을 조명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



울음소리 하수경 / 웅진주니어

가정 내에서 음성화된 폭력이 이후 여러 범죄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악순환 과정을 밟는 사회적 문제가 됨을 직시하고, 더 이상 '남의 집 일'이 아닌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일'이라는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임을 나직이 이야기하는 그림책.



너는 착한 아이야 나가와키 하쓰에, 작은씨앗

'아동 학대'를 주요 모티브로 배어난 문체와 세련된 필치에 몽글한 강도와 강력한 치유의 메시지가 담긴 5편의 연작 단편집.



어항에 사는 소년 강리오 / 소원나무

복합적 학대에 시달리는 영유, 심리적 학대를 겪는 현재, 신체적 학대에서 벗어나려 가혹한 배당 형 이 셋은 우연한 계기로 만나 서로의 상처에 공감하면서 묵묵하게 서로를 보듬는다. '아동 학대'라는 무거운 주제를 섬세한 감정 표현과 묵직한 서사로 풀어내면서 청소년이 어른의 소유가 아닌 온전한 삶의 주체임을 이야기한다.



아동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 류이근 외 4인 / 시대의 창

《아동 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은 학대 피해 아동의 죽음 앞에서 또다시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다섯 가지 그리고 이들의 취재를 도운 많은 이들이 함께 기록한 우리 사회의 아동 학대 사담 리포트다.